

디자인계열 입학생의 실기능력 유무에 따른 조형교육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Learning Efficiency of the Plastic Arts Expression in College of Design on the Students
Preeducation

윤민희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Yun, Min-Hie

Kyung Hee University

이현국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Lee, Hun-Kuk

Kyung Hee University

· Key words: Deign Education, Plastic Arts,

1. 서론

1-1. 연구목적

본 연구는 현재 초기 단계에 있는 디자인 계열의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작업과 교육과정, 학생들의 작업추이들을 구체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실기 능력 유무에 따른 입학 전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조형교육의 방향성 및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기초 조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및 방법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디자인 계열대학 1학년 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입학 전 실기교육의 유무에 관계없이 디자인 계열대학에 입학한 2000학년도, 2001학년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실기교육을 받은 학생들(A군)과 받지 않은 학생들(B군)을 2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지 조사를 무기명으로 실시한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학생들의 기초실기 과정의 작업(드로잉, 컴퓨터 드로잉,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을 무기명으로 예술·디자인계열 담당교수 10명에게 정량화 한 조형적 분석의 설문지 조사를 실시한다. 위의 두 종류의 설문지 조사 결과를 연구·분석하여 새로운 조형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 연구대상

디자인계열 대학 1학년 학생

2) 연구범위

· 디자인계열 대학 1학년 기초 조형교육과정(드로잉, 컴퓨터 드로잉,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작업에 조형적 분석에 바탕을 둔 교수들의 설문지 조사 및 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지 조사

① 조형적 분석 방법연구

② 기초 조형교육과정에서 디자인 교육방법과 교육현황을 연구·분석

③ 새로운 교육안 제시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설문지 조사를 중심으로 통계조사 방법 및 문헌연구로 진행하였다.

① 2종류의 설문지 작성(학생 및 교수 대상용)

② 설문지 조사실시

③ 자료처리(통계처리 방법)

④ 분석 및 제언

4) 연구기간 : 2001. 9. 1-2002. 8. 31.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기초 조형교육과정을 연구 범위로 설정하고 기초 조형에서 형태, 색채, 공간감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기초 조형교육과정에서 디자인 교육방법과 교육현황을 연구·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를 중심으로 한다.

2. 본론

2-1. 국내외 예술·디자인대학의 입시제도 현황분석

현행 국내대학 입학 시험제도는 대학 수능능력시험 점수, 내신성적, 면접고사 등을 전형자료로 하고, 예체능계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실기고사를 부과하는 방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국내 디자인 계열 4년제 대학의 입학전형에 학과 성적(수능성적)과 실기성적의 비중이 거의 동일하거나 실기능력을 보지 않고 수능 점수만으로 전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실기 전형과 비실기 전형의 학생들을 동시에 입학시켜 하나의 통합된 교과과정에서 교육시키고 있는 대학들도 다수이다

1) 실기 및 비실기 전형 학생들에 대한 설문지 조사

본 연구는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학 신입생의 1학년의 기초실기 교육과정에서의 심리적 분석 및 입학전의 과외의 미술교육 등에 대한 설문지를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실기전형 및 비실기 전형의 비율은 90:46이다.

3. 결론

3-1. 설문지 조사 및 기초 실기 작업 분석 결과 및 제언

1) 디자인대학 입학 전 실기능력을 교육받은 학생들의 설문지 결과

2000-2001년도 디자인계열 대학 입학생의 실기능력 유무에 따른 조형학습의 결과에 대하여 1학년 기초실기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지 조사에 따르면 디자인대학 입학 전 실기능력을 교육받은 학생들은 전체 입학생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에 따른 디자인 대학 기초실기 교육과정에 초래되는 다양한 양상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학생 및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수능과 학생부 성적이 높은 학생이 컴퓨터를 포함한 학업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실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반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기초 조형교육의 필요성 때문에 실기교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실기교사를 실시한 학생과 비실기 학생의 경우,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학생과 졸업생의 경우, 미술 작업시 실기시험을 준비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여 실기시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

오늘날 예술·디자인계열 대학의 실기 작업 평가 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을 제시하고 있다. 미술대학 입학시험은 그 동안 수험생이 입학 후 어느 정도의 잠재력의 발휘 및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솜씨를 숙달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에 달려있다.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고등학교 미술교육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대 입시에 고등학교 미술교과목이라는 학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학교의 정상적인 미술교육만으로 미대입시를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술계 지망생들은 과중한 학업과 40%이상을 실기 점수로 배점하는 입학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미술대학 지원자들은 학교 이외의 장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술학원이나 화실, 또는 개인교습을 위하여 고액의 과외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설문지 조사결과를 볼 때 미술대학 진학을 위하여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미술교육보다는 미술계 전문학원 교육을 통하여 입시준비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미술대학 합격자들은 대부분 전문 입시 미술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 출신이 많으며 경제적으로 학원수강료를 부담할 수 있는 중류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자녀들이 많은 것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미술학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중, 소도시, 농촌지역출신의 학생들은 실기전형으로 디자인대학에 입학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결과는 인재양성과 지역에 따른 예술의 균형 있는 발전에 많은 장애를 겪고 있는 요소이다.

3-2. 새로운 대학의 조형교육에 대한 제언

멀티미디어 디자인의 확산과 함께 디자인 교육도 과거의 형태, 재질에 대한 연구 등의 기초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미디어 시대의 다양한 표현 매체와의 접목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 학생들의 상호조화 및 질층에 바탕을 둔 특성화 교육은 창의성에 바탕을 둔 조형 교육의 실시와 함께 비실기 전형 학생들을 위한 묘사능력(드로잉)의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양화된 교과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다.

평면디자인 및 입체디자인의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과 함께 학생들에게 재료연습, 기법습득, 제작, 감상과 비평의 분야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이 요구된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학생에 관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구상능력이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형성이 강조된 입체 구성은 기초 조형으로서 미술 교육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입체 구성은 순수조형의 요소와 원리에 의한 형태의 창조이며 이 형태는 끊임없이 변형되는 것으로 새로운 형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감각이 모색되어야 한다.

컴퓨터 드로잉은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기술적인 재현 능력에 관한 교육 강화와 함께 기초디자인의 조형교육,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기초 교과목의 상호연관성, 각 전공의 퓨전화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하여, 실기교육과 이론 교과목이 상호 연관된 교육과정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론 교과목교육도 미술사, 디자인 및 공예이론, 공연예술의 상호 접목을 시도한 새로운 조형예술 영역의 개척이 필요하다. 이론 및 실기교육의 조화에 바탕을 둔 디자인 교육과 함께 스튜디오 리서치와 같은 실기와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토론형식의 수업 다양한 전공과정의 연계수업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기초교육 과정에 있어서 이론과목의 역할은 매우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대부분의 디자인 계열대학은 이론교과목(디자인론, 미술사 등)을 획일적으로 대단위 강좌로 개설함으로써 디자인 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실기와 이론의 조화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기와 이론교육이 상호 연계된 소규모의 토론식 세미나 수업을 개설하는 것이 선진 디자인 교육을 위해서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다양한 전공 기초교육과정은 제작 결과보다 제작과정을 중시하며 기본적인 체계적인 이론 및 실기교육 과정을 통해서 시각경험과 감각 훈련 등의 미적 체험과 더불어 조형 실습과 시각전달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디자인계열 대학의 입시전형에서 각 대학, 학과마다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입시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거의 모든 대학이 같은 비율로 입시전형 하는 획일화된 실기 및 비실기 전형의 문제를 개선하여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발기준에 의한 대학교육 적격자를 선발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1) 미술대학 실기시험 有? 無?(2년제 대학위주), <<미디어 가는 길>>, 2001. 9., p. 111.